

혼돈(混沌)의 가장자리 : 劉震云 소설 《一句頂一万句》의 한 가지 독법

金 榮 哲*

— <目 次> —

I. 서론	2. 사건의 비선형성
II. 《一句頂一万句》와 혼돈성(混沌性)	3. 인물의 카오스적 편력
1. 방사형 서사구조	4. 창발적 대응과 좌절
	III. 결론

I. 서론

허난성(河南省) 농촌 출신 작가 리우전윈¹⁾(劉震云: 1958~)은 그의 소설에서 역사·권력·소시민의 일상·소통 등 중국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사실주의 계열의 작가이다. 그의 소설 세계의 뿌리는 그의 고향 허난성과 농촌이며, 그의 소설 속의 사회는 부조리하며, 그가 주로 관심을 보내는 인물은 보통 사람들이고, 즐겨 사용하는 미학적 수법은 쓴 웃음을 자아내는 반풍(反諷)이다.²⁾

중국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의 최근 장편소설 《一句頂一万句, 한

*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본 논문의 중국어 발음은 <최영애- 김용욱 중국어 표기법>에 따른다.

2) 역사는 《温故一九四二》, 권력은《官人》《官场》, 소시민의 일상은《一地鸡毛》, 소통 문제는《手机》 등의 작품들이 있다. 抽稿, 〈刘震云 小说论〉《中语中文学》第21辑, 1997, 661-680쪽.

마디 말이 만 마디 말에 상당하다》³⁾은 그의 소설 세계의 한 고점(高点)을 이루는 역작이다. 이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은 작가 자신의 고향인 허난성 이엔진 현(河南省 延津縣)⁴⁾이고, 시대 배경은 민국(民國)에서 현재까지로 근 100년 동안이다. 등장인물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 분석 대상⁵⁾에서 제외된 농촌의 이름 없는 하층민들이며,⁶⁾ 서사 내용은 그들의 하찮은 인생 역정이다.

특이한 점은 이 소설이 중국현대사 100년을 시대배경으로 하면서도 열강의 침략과 민중 봉기, 국공내전, 공산주의 혁명 등 파란만장했던 중국 현대사의 역사적·정치적 대 사건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현대사에 대한 지배 권력의 해석에서 소외된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비상(非常)한 시도로 이 작품은 언외(言外)의 중량감을 지닌다. 이런 중량감과 중국 문명에 대한

-
- 3) 이 말은 문화대혁명시기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린뱌오(林彪)가 마오쩌둥(毛澤東)을 우상화하는 말로 “그(모택동)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만 마디의 말에 상당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林彪가 毛澤東에게 한 것처럼,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배반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작품의 제목은 신뢰 붕괴란 풍자적 의미를 지닌다. “当年鼓吹“一句顶一万句”的“亲密战友”，却成了“当面喊万岁，背后下毒手”的枭雄，这个书名既是直写，却又是反讽。”张颐武，〈书写生命和言语中的“中国梦”〉《文艺争鸣·新世纪文学研究》，2009/8，48쪽.
- 4) 延津縣은 인구가 30여만 정도의 작은 현으로 토지에 소금 함유가 많고, 10년 중 9년은 가뭄 아니면 침수되는 자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延津是盐碱地，十年有九年闹灾荒，不是旱了，就是涝了，全县三十九万人。”劉震云，〈一句顶一万句〉，长江文艺出版社，2009. 91쪽.
- 5) 마오쩌둥(毛澤東)의 〈中國社會階級分析〉에서 그들은 중요한 계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毛泽东在《中国社会各阶层分析》中称他们为小工商业者。中国文学中，工商业者是被忽略的群体，他们很少以正面形象出现。”李清霞，〈无根者的孤独与言说——刘震云《一句顶一万句》的文学言语学解读〉，《创作与评论》，2012，81-84쪽.
- 6) “这些人从事的职业，除了与杨百顺重合之外，还有赶车的、贩牛的、剃头的、打铁的、卖盐的、卖葱的做首的……这在农村就叫手艺人。” 중국에서는 이들을 수艺人이라고 부른다. 陈晓明，〈“喊丧”、幸存与去历史化〉，《南方文坛》第5期，200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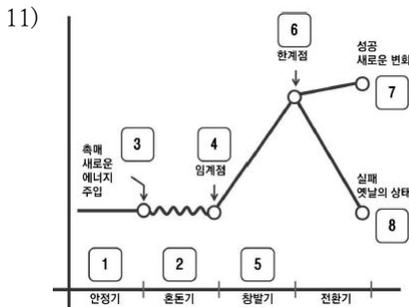
진지한 성찰로 이 작품은 중국 장편소설의 권위상인 마오둔 문학상(茅盾文學賞)과 르언민 문학상(人民文學賞)을 수상했다.⁷⁾

이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분석 시각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로 이 작품을 중국 농촌 사회에 대한 진단으로 보는 연구 성과들로 그 주요 키워드는 “절망적인 생존 상황”, “부조리한 사회와 개인” 등이다. 이 연구 성과들은 이 작품에서 작가는 중국 농촌 사회를 부조리하고 절망적인 생존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⁸⁾ 둘째는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난 중국 농촌 하층민의 정신 상태에 주목한 연구 성과들이다. 이들의 주요 키워드는 “생존과 말하기의 의미”, “뿌리 없는 자의 고독과 말하기”, “지기(知己)찾기”, “떠나기” 등으로, 중국 농촌 하층민들의 삶 속에서 진실한 소통(“说得着”)의 의미, 그들의 “고독”, “지기(知己)찾기” 그리고 “떠나기” 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⁹⁾ 세 번째의 연구 성과는 예술 기법을 분석하는 성과와 현실 역사 기록과 연관시켜 보는 성과들로 그 주요 키워드는 “서사 기법”, “언어 특색”, “역사 생략 去歷史” 등으로, 이 소설이 지니는 특이한 서사구조의 특징을 지적하고, 기존 중국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¹⁰⁾

- 7) 2009년에 출판되어 2011년 중국의 최고 권위의 장편소설상인 茅盾文學獎과 人民文學獎을 수상했다.
- 8) 절망적인 생존 상황과 부조리 사회와 개인: 曹霞, 〈滔滔的话语之流与绝望的生存之相〉, 2009. 万海洋, 〈荒诞境遇下的存在状态-刘震云小说的存在主义解读〉, 2009.
- 9) “말하기 说话”의 의미 관련 논문: 孟繁华, 〈“说话”是生活的政治—评刘震云的长篇小说《一句顶一万句》〉, 2009. 周新民, 〈《一句顶一万句》: 书写“说得着”的终极价值〉, 2010. 郭嘉, 〈如此“说话”所谓哪般—评刘震云的长篇小说《一句顶一万句》〉, 2012. 汪杨, 〈我们还能怎么“说”?—刘震云《一句顶一万句》读札〉, 2010. 하층민의 정신상태 관련 논문: 王玲玲, 〈文学描述中的社会底层精神状态—以刘震云《一句顶一万句》〉, 2011. “고독과 지기 찾기과 떠나기 관련 논문: 成振鹏, 〈一部“孤独”和“寻找”的历史—试析刘震云的《一句顶一万句》〉, 2011. 贺绍俊, 〈怀着孤独感的自我倾诉—读刘震云的《一句顶一万句》〉, 2009. 马云鹤, 〈消解孤独的两种方式—浅析刘震云的《一句顶一万句》〉, 2010. 李清霞, 〈无根者的孤独与言说*—刘震云《一句顶一万句》的文学言语学解读〉, 2012. 许贻斌, 〈血缘历史中的“道路”母题——《一句顶一万句》中的“行走”意义〉, 2011.

이런 기존 연구들은 각각 이 작품의 특징과 의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특징들이 지니는 좌표와 각 특징들의 관계 그리고 전체적인 지향점을 하나의 틀로 조망하는 이론 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¹¹⁾을 기본 시각으로 하고 그 주요 개념을 원용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이론은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현상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규칙성을 찾는 이론적 접근을 말한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에서 시작됐으나, 이제는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되고 있다.¹²⁾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분야

10) 서사 기법 및 언어 특색 관련 논문: 李晋暉·安志烁,《“拧巴”的口语—论刘震云小说的语言特色》, 2009. 陈晓明,《新世纪文学：“去历史化”的汉语小说策略》, 2010.



이 도표는 안정된 상태에서 혼돈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을 도표화한 것이다. 류호열·장영창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숙영남자 서사’의 텍스트 소통 상황과 서술의식 고찰>, 2012, 170쪽. “자연은 질서와 무질서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질서적 세계는 계산을 통한 예측이 가능한 데 반해 무질서적 세계는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며 비 예측적이다. 이러한 무질서적인 세계를 복잡계라고 하며, 복잡계 이론은 카

오스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슈테판 그레시크 지음, 박상화 옮김, 《카오스와 카오스의 질서》, (주)자음과모음, 2010, 144쪽. “체제를 평형 상태, 평형으로부터 가까운 상태, 평형으로부터 먼 상태, 혼돈 상태 등의 4가지로 나눈다면, 기존 과학에서는 평형으로부터 먼 상태나 혼돈 상태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고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1900년대 후반에 태동한 복잡계 이론에서는 이러한 혼돈 현상도 문자 그대로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일부라고 보고 그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규명하려 한다.” 최창현 박찬홍, 《복잡계와 동양사상》, 지샘, 2007, 29쪽.

12) 한국의 경우, 영화 분석 사례로는 장영창,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영화 <세월간이>의 구조와 표현 연구>, 2012. 문학 작품 분석 사례로는 류호열·장영창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숙영남자 서사’의 텍스트 소통 상황과 서술의식 고찰>, 2012. 문화 현상 분석 사례로는 김창현 <장르론의 전제에 대한 고찰—복

에서도 이 이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늘날 사회 변화의 특징인 무질서·불안정·다양성·비 균형성 등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읽는 독법(讀法)으로 이 이론을 원용하려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 서술된 중국 농촌 사회가 무질서하고 비상식적인 사회이고, 사건들은 비선형(非線型)적으로 우연과 곡절로 점철되고, 작중인물들은 진정한 소통(“说得着”)을 갈망하나 이루지 못해 “고독”하고, 그를 해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기(知己)를 찾으나 실패하고, 끝내는 현실에서 대안을 찾지 못해 타향으로 떠나는 등 혼돈(Chaos)의 사회와 그 혼돈에서 이탈하려는 개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통하면 이러한 현상들의 상호 관계와 좌표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작가가 이 이론에 입각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서술 대상인 중국 농촌 사회 자체가 혼돈 상태인 관계로 이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이기에 때문에, 이론의 직접적인 대입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이 이론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삼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 이론의 몇 가지 중요 개념을 동원해 작품을 해석하고자 한다.

II. 《一句頂一万句》와 혼돈성(混沌性)

민국(民國)시대를 그린 이 소설의 전반은 고립무원의 주인공 양바이순(楊百順)이 양녀를 잃어버리고 고향 이엔진(延津) 현(縣)을 떠나는 내용이고, 신 중국 수립이후를 그린 소설 후반은 그의 외손자(양녀의 아들)니우 아이꾸어(牛愛國)가 친구와 아내를 찾기 위해 이엔진(延津) 현(縣)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근현대사 100년이 지나고, 주인공들

잡계로서의 문화 현상 연구 방법론 모색 시고->, 2006. 등이 있다. 중국에서 복잡계 이론으로 영문학 작품 분석을 시도 한 사례로는 程航, <도리스 레싱의 《금색 필기》해석 解析多丽丝·莱辛的《金色笔记》>,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은 혼돈의 와중에서 방황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소설의 전편은 3인칭 전지(全知)적 시점이 채용되고 서술자가 작품 전체의 내용을 주도하며, 스토리는 주로 주요 인물의 일상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연결된다.¹³⁾

1. 방사형 서사구조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역사서들은 중국 현대사는 전쟁과 기아 그리고 혁명의 역사이며, 농촌은 혁명의 근거지이고 농민은 혁명의 주체 세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이러한 정치적 거대 담론 보다, 중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작은 도시와 그곳에 거주하는 수많은 하층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중국 현대사라고 주장한다.¹⁴⁾ 작가는 이 작품에서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인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당시 중국 농촌 사회는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상태이고, 전통적인 윤리나 인간관계가 거의 붕괴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그러한 해체와 혼돈을 소설 속에서 여러 가지 서사 장치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이 소설의 서사구조이다. 이 작품은 한 두 사건을 중심으로 기승전결 식으로 전개되는 일반적인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과는 달리, 서로 상관없는 에피소드들이 꼬리를 물고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방사형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은 송(宋) 시기에 창(唱)하는 사람이 저본으로 사용했던 화본(話本)나 민간들의 일상사나 세태(人情世故: 세상 물정)를 주로 그린 명 시기 의화본 소설(擬

13) 李勇, 〈新世纪乡村叙事未来发展的启示与可能, 一以李洱、迟子建和红柯、刘震云的创作为例〉, 《文艺评论》2011, 34-40쪽.

14) “刘震云尝言:“他们经历的事儿特别地惊心动魄, 不小于一场战争、一场政治改革, 不小于一场社会改革, 不小于人类往哪儿去…….” 吕永林, 〈谁是刘震云小说世界恒久的主人公〉, 《方法与文本》, 2012, 26쪽.

话本小說)의 전통¹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는 중국 대담 방식인 파오티(“跑題”)의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¹⁶⁾

그러나 이런 중국 전통 민간 소설이나 대담 형식들이 사건 전개에 서술의 중점을 두었다면, 이 소설은 작중 인물들의 인간관계나 정신적 고통 등에 서사구조와 서술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 소설의 첫 장은 이 소설의 이러한 서사구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 ① 두부장수 양 씨(老杨)와 마부 마 씨(老马)의 이야기
- ② 대장장이 리 씨(老李)와 그의 모친과의 이야기
- ③ 리 씨 모친의 70세 생일잔치의 내막
- ④ 시장바닥 노점상 양 씨와 뚜 씨(老窦)의 싸움
- ⑤ 40년 뒤 파 장수 뚜안(老段)씨의 양 씨 방문
- ⑥ 장남 양바이이에(杨百业)와 부친 양 씨의 대화

15) 王毅, 〈明代拟话本小说之文化理念与历史哲学的发生〉, 《文学遗产》, 1999-09-20, 46쪽.

16) 이런 서술 형태에 대해 중국 연구자들은 宋나라 때 “话本” 明나라 때 拟话文体的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陈新榜等, 〈一次向“民间史诗”的进攻—评刘震云长篇新作《一句顶一万句》〉, 《北大刊评》(2009年第7期), 2009, 106-108쪽. 금전출납부처럼 중점 없이 사물을 나열하는 방식의 일상 기록인 “流水账式의 기록”으로 보기도 하고 汪杨, 〈我们还能怎么“说”?—刘震云《一句顶一万句》读札〉, 《小说评论》제4기, 2010, 144-147쪽. “주절주절 말하다 보면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고, 하나의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여러 이야기로 바뀌고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 특징을 분석하기도 하고, 杜文博, 杨涛, 〈论刘震云《一句顶一万句》中乡土叙事的去历史化倾向〉, 《科技信息—人文社科》, 2009, 165-167쪽.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중국 대담 방식인 “跑題”의 특징과 “슬쩍 남의 물건을 손에 넣는다 顺手牵羊”는 손자병법 중의 한 계약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陈晓明, 〈“喊丧”、幸存与去历史化〉, 《南方文坛》第5期, 2009, 5-20쪽. 중국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형식 특징 보다는 “자유 연상 식 서술과 사건 상호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사례들이라는 특징을 주목해 방사형적인 구조라고 한다.

위의 6개 에피소드는 논리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가 없다. 리 씨 모친의 생일잔치를 그린 에피소드 ③이란 고리로 직접 관계가 없는 ①과 ②가 연결된다. ④와 ⑤도 단지 생일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나열이지 논리적 관계가 없다. 특히 ⑤는 40년 뒤의 일로 앞의 이야기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⑥은 ①과 관계있으나 사건 발전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

이 소설 전체에 이러한 첫 장의 서사구조 방식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렇게 매우 산만해 보이는 서사구조는 비논리적이고 무질서한 농촌 사회의 모습 그대로인 “원 상태”¹⁷⁾를 반영하는 구조로 당시 중국 농촌 사회의 “혼돈성”을 구조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이 6개의 에피소드는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라는 서사의 중심 모티브로 연결된다. 이러한 중심 모티브에 의해 이 소설은 산만하고 무질서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점을 지향하는 주제 중심형 소설로 거듭난다.

서사 구조가 이런 형태이므로 독자들은 서술자를 따라 이정표 없는 미로나 혼돈의 소용돌이 같은 중국 농촌 사회로 긴 여행을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무질서한 세상을 인식하는 이 작가의 특유한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건의 비선형성

방사형 서사구조를 지닌 이 소설 속의 사건들은 사건의 인과관계가 비선형(非線型)적인 특징을 지닌다. 복잡계 이론에서 “비선형”이란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가 동역

17) 신사실주의 작가들은 작가들의 주관성을 최대한 줄이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태 그대로 즉 “原生態 還元”을 주장했던 유파들이고 리우전윈(劉震雲)은 이 유파의 대표 작가이다. 줄고, 〈신사실주의론〉, 《중국어문논총》 제11집, 1996년 12월, 300쪽.

학(動力學)에서 혼돈 운동을 유발한다고 본다.¹⁸⁾ 소설에 “비선형”이란 개념을 원용한다면, 어떤 사건에서 처음 예상한 것(입력)과 다른 결과(출력)가 초래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즉 작중 사건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비선형적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비선형적 인과관계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는 “혼돈”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중국 농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사건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작가로 상정되는 이 이지적인 관찰자는 “~이 아니라, 이렇다 不是~而是”라는 구문을 작품의 전반부에는 134개, 후반에는 72개 총 206개나 사용하며 서술자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이 특이한 구문은 서술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중국의 농촌 사회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서사 장치이다. 먼저 전반부에서 이 구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老裴这才知道，那个内蒙人不远千里来河南找他，并不是为了拼命，也不是为了钱，而是为了让他一辈子不得安生。”¹⁹⁾

페이 씨는 이제야 그 내몽고 사람이 불원천리 허난(河南)에 와서 그를 찾은 것이 사생결단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가 평생 편안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몽고에 노새 팔러 갔다가 외도 했던 여자의 남편이 페이(裴)를 찾아 온 것이 돈이나 분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평생 편히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서술자가 보기에 이러한 심리 구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18) 윤영수, 채승범,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 연구소, 2005. 541-542쪽.

19) 같은 책, 11쪽.

“不让铺面不是跟老熊家有啥过节，而是老汪他爹处事与人不同，同样一件事情，对自己有利没利他不管，看到对别人有利，他就觉得吃了亏。”²⁰⁾

점포를 양도하지 않는 것은 시웅(熊)씨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고, 그의 아버지 왕(汪)씨는 다른 사람과 달리, 같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유
리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유리한 것을 보면 자기가 손해를 보
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해(利害)를 떠나 타인이 득을 보면 무조건 반대하는 뼈뿔어진
심리는 서술자의 상식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선형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생각(선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구조를 지닌 중국
농촌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순조로울 리가 없다. 이 작품의
사건들은 대부분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비선형성”을
보인다.

서술자는 “곡절(弯儿)” 혹은 “경위(原委)”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사건이
엉뚱하게 꼬이는 현상에 주목한다. 주인공 양바이순(杨百顺)의 사부인 청
씨(老僧)의 결혼은 그가 적극 권유해 성사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권
유했던 사모에 의해 쫓겨나게 되고, 친 씨(老秦)가 빈말로 한 것이 빌미가
되어 그의 딸 친만칭(秦曼卿)이 엉뚱하게 양바이이(杨百业)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런 예이다. 서술자는 처음 의도와 달리 예상치 않은 결과
를 초래하는 현상을 중국 농촌 사회의 일상적인 원리라고 지적한다. 서술
자는 “원래 사건이란 중간에 몇 번의 굴곡이 있는 것이다”²¹⁾, “일에는 모
두 경위(原委)”가 있기 마련이다.”²²⁾ 혹은 “원인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²³⁾라며 중국 농촌 사회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사회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의 전통

20) 같은 책, 23쪽.

21) “原来一件事，中间拐着好几道弯儿呢。” 같은 책, 92쪽.

22) “每个事中皆有原委。” 같은 책, 101쪽.

23) “前因这么不搭后果。” 같은 책, 180쪽.

적 인간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보고 있다. 이 작품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인간관계인 오륜(五倫)의 관계가 이익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는 인간관계 중 각 개인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며 그 실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²⁴⁾

서술자는 첫 장부터 효(孝)를 찾아보기 힘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제시한다. 어렸을 때의 작은 일로 양심을 품고 있다, 장님이 된 노모에게 복수하는 대장장이 리(李)씨와 그의 모친의 관계는 효(孝)를 강조하는 유교의 모자(母子)관계로 볼 수 없다.²⁵⁾ 리(李)씨는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친구 사이도 우의라곤 찾아 볼 수 없고 멸시와 복수 등으로 얼룩진 삭막한 관계이다. 마부 마(馬)씨는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 두부장수 양(楊)씨를 멸시해 생일잔치에 함석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²⁶⁾ 뚜안(段) 씨는 동료인 양(楊) 씨에게 양심을 품고 있다 40년 뒤에 증풍으로 누워있는 것을 알고 찾아 와 조롱한다.²⁷⁾

부자(父子)사이도 속임수를 쓰는 사이이다. 양바이순(楊百順)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들을 속인다.²⁸⁾ 그로 인해 아들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들 사이에는 오륜(五倫)의 기초 덕목인 사랑(仁)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관계는 이 소설의 제목처럼 진심어린 “한 마디(一句)”도 나누기 힘든 관계이다. 결국 주인공 양바이순(楊百順)은 정신적으로 사막과 같이 황폐된 이 사회를 떠나게 된다.

24) 周新民, 〈《一句頂一万句》: 书写“说得着的”的终极价值〉, 《文学教育》 2010, 23-24쪽.

25) 劉震云, 앞의 책, 3-4쪽.

26) 같은 책, 5쪽.

27) 같은 책, 7쪽.

28) 같은 책, 45쪽.

3. 인물의 카오스적 편력

복잡계 이론에서 외부의 영향이나 내적 충동 등이 내화(內化) 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을 “카오스적인 편력”이라고 말한다.²⁹⁾ 이는 그 사회 붕괴의 전조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양바이순(楊百順)과 니우아이꾸어(牛愛國)가 집을 떠나 겪는 인생 역정도 “카오스적인 편력”의 성격을 지닌다. 그들이 집을 떠나 진전하는 것은 고향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택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들이 “카오스적인 편력”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을 인간관계에 두고 있다.

전반부의 주인공 양바이순(楊百順)은 돼지 백정, 염색공장 잡부, 이탈리아 신부의 조수, 대나무 공장(竹業社)의 일꾼, 현(縣)정부의 채소밭 관리자, 만두집 과부 우시앙시앙(吳香香)과의 남편 등의 역할을 하며 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양녀 चा오링(巧玲)까지 잃게 되자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가 겪는 편력은 가족 관계와 혼인 관계의 파열, 사회의 신뢰 결핍, 소통 불능 등에 의한 것이다.

그 중, 이탈리아 신부의 조수가 됐을 때는 《성경(聖經)》의 모세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이름이 양바이순(楊百順)에서 양 모세(楊摩西)³⁰⁾로 바뀌고, 우시앙시앙(吳香香)과 결혼할 때는 성(姓)까지 아내의 성을 따라 우뤄시(吳摩西)³¹⁾로 바뀐다. 그의 개명(改名)은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택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29) 이케다, 가네코 <카오스적 편력에 대해>, 《현대 사상》, 1995년 5월호 재인용, 요시나가 요시마사 지음, 주명갑 옮김, 《복잡계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사, 1997. 185쪽. 카오스적 편력이란 개념으로 보면 북한의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의 붕괴 조짐을 보여 주는 징조이다.

30) 刘震云, 앞의 책, 107쪽.

31) 데릴사위 형식으로 처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성도 바꾸게 되는데, 이로써 양바이순이란 그의 정체성은 성까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같은 책, 135쪽. 후에 고향을 떠나서는 그가 좋아했던 친구의 이름 罗长礼를 사용하게 된다. 같은 책, 208쪽.

후반부의 주인공이며 양바이순(楊百順)의 외손자인 니우아이꾸어(牛愛國)의 “카오스적 편력”은 전반부의 양바이순(楊百順)처럼 생계 문제까지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의 배신과 아내와의 소통 불능 등 역시 불행한 인간관계 때문이다. 부친 세대인 니우수따오(牛書道)와 횡스룬(馮世倫)은 동네의 막역한 친구였으나 만두 하나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결국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아들 세대인 니우아이꾸어(牛愛國)와 횡원시우(馮文修)도 경우 고기 10근 값 때문에 불만을 품다 나중에는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³²⁾ 동네친구였던 땡 씨(老丁)와 한 씨(老韓)도 우연히 길에서 주는 돈 보따리 때문에 서먹해 지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된다.

니우아이꾸어(牛愛國)는 믿고 의지하던 친구들의 변심에 실망하고, 또 바람난 아내 팡리나(龐麗娜)의 불륜에 방황한다. 소설 속에서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소통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아내는 지앙 씨(小蔣)과 바람을 피우더니 나중에는 형부와 도망친다. 그는 “언덕위에서 발아래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정말로 살인까지 할 것 같다.”고 느낀다.³³⁾ 그도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다.

이런 상황을 복잡계 이론에서는 임계점(critical point)이라고 말한다. 임계점이란 통상적으로 구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으로 고비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³⁴⁾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는 “카오스적 편력”은 구질서(舊秩序)의 붕괴 임계점을 알리는 전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같은 책, 291쪽.

33) “牛愛國看着山脚下万家灯火的沁源县城”，“突然感到自己要离开这里，不然他真要杀人。” 같은 책, 291쪽.

34) 윤영수, 채승병 지음,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1991, 536쪽. 任传印, 〈对民间生命主体性的观照——论刘震云的小说《一句顶一万句》的主题意蕴〉, 《平顶山学院学报》第26卷 第4期, 2011, 77쪽. 양바이순의 스승인 왕 씨가 떠나는 것도 상처받은 곳에서 떠나는 것이다. 떠났기 때문에 왕 씨는 미치지 않은 것이다. 呂永林, 앞의 논문, 2012, 18-29쪽.

4. 창발적 대응과 좌절

구질서가 해체 될 때 사람들은 자구책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데 이를 복잡계 이론에서 “창발 현상(emergence behavior)”이라고 한다.³⁵⁾ 이 소설에서 작중 인물들의 창발 현상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찾으려는 것을 볼 수 있다.³⁶⁾ 이는 중국 근현대 사회가 누구와도 진정으로 소통할 수 없는 불신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의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가 부정되고, 수시로 벌어졌던 계급투쟁, 노선 투쟁, 문화대혁명 등을 겪으며 중국인들은 부모자식 혹은 동지나 친구들이 서로 불신하는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문혁 이후, 시인 베이다오(北島)는 그의 시〈回答(1976)〉에서 하늘은 푸르다는 자명한 사실도 믿지 않으며, 세상(중국 사회)에 대해 “나는 믿지 않는다!”라며 불신 시대를 외치고 있다.³⁷⁾

이런 사회에서 새로운 건강 사회를 위한 자구책으로 작중 인물들은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한다.

작가는 그런 자구적 대응으로 “진정한 소통”을 주목한다. 그들은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거짓된 만 마디의 말에 상응하는 진정한 한 마디” 말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을 찾으려 전진한다. 그들의 이러한 창발적 행위는 작품 전체에서 대부분 작중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³⁸⁾ 진정한 소통이 가장 가능한 사람은 친구이다. 친구는 중국인의 마음

35) 윤영수, 채승법, 앞의 책, 57쪽.

36) “在世上能找到一个“喷空”的伙伴，也不是件容易的事；人生有一知己足矣。”刘震云, 앞의 책, 55쪽.

37) “당신에게 말한다. 세계를 나는 믿지 않는다. 설사 내 다리 아래 천명의 도전자도 있더라도 나를 천일 번으로 삼아라. 나는 하늘이 푸른 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천둥의 메아리도 믿지 못한다. 나는 꿈이 거짓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헛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告诉你吧，世界/我--不--相--信！ / 纵使你脚下有一千名挑战者 / 那就把我算作第一千零一名。 / 我不相信天是蓝的 / 我不相信雷的回声 / 我不相信梦是假的 / 我不相信死无报应。” <http://baike.baidu.com/subview/891397/8664863.htm?fromId=2830#2>

38) 윤영수, 채승법, 앞의 책, 57쪽.

속에 이해관계를 넘어서 서로 영혼의 교류가 가능한 관계이다.

(우정이란) 돈이 없을 때 돈을 꾸거나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관계가 아니라, 풀리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생각을 확실히 정하지 못할 때 상의할 수 있는 관계이며, 할 말이 구체적으로 없어도 마음이 울적하면 찾아가서 잠시 같이 있어도 되고, 잠시 만나 울적한 것을 토로하면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이다. 근심이 구체적이지 아니고 끝이 없어(말하고 싶어도) 말 할 수 없으면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잠시라도 같이 있거나 다른 말을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관계를 말한다.³⁹⁾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작중인물들이 찾는 “친구”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며 완벽한 소통이 가능한 “지기(知己)”에 대한 관념과 매우 유사하다.⁴⁰⁾

그지기(知己)를 찾는 현대적인 방법 중 하나는 중국 허난성(河南省) 특유의 대화 방식인 “말 이어가기 噴空”⁴¹⁾의 상대를 찾는 것이다. 그들은 가족과 직장을 버리면서까지 이 대화 방식의 상대를 찾아 옮겨 다닌다. 주인공 양바이순(楊百順)의 동생 양바이리(楊百利)와 니우꾸어싱(牛國興), 양바이리(楊百利)와 완씨(老萬)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⁴²⁾ 그들은 의기가 투합해 며칠 밤을 세워가며 끊임없이 “말 이어가기 噴空”를 지속하며 “지기(知己)”를 만난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소

39) 劉震云, 앞의 책, 211쪽. 가수 周華健의 노래 〈朋友〉가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친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세상에지기(知己)가 있으면, 세상 끝에 있어도 이웃에 있는 것 같다. 海內存知己, 天涯若比鄰.” 王勃《杜少府之任蜀州》,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한다. 士為知己者死, 女為說己者容.” 《史記·刺客列傳, 伯牙와 鍾子期《列子·湯問》.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subview/100946/5447012.htm?fr=aladdin>, 사가.

41) 延津의 방언으로, 한 사람이 말을 꺼내면 상대가 말을 이어가며 이야기를 만 들어가는 대화 방식.

42) 劉震云, 앞의 책, 54-60쪽.

한 사건들로 상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끝내는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만다. 즉 그들의 창발적 행동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다른 형태는 “속마음 心腹話”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 경우 나이나 신분에 관계가 없다. 주인공 양바이순(楊百順)은 자기를 구해 준 폐이 씨(老裴), 백정 사부 청 씨(老僧)와 이탈리아 신부 잔 씨(老詹) 등과 속마음을 터놓으며 안도감을 느낀다. 특히 양녀인 चा오링(巧玲)과는 서로 나이와 성별, 의붓아버지와 딸이라는 불편한 관계임에도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상대를 잊지 못한다. 어려서 납치당해 수 십 년을 만나지 못했어도 चा오링(巧玲)은 임종 전에 양부인 양바이순(楊百順)⁴³⁾을 찾을 정도로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어 지속하지 못한다. 진정한 관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양바이순(楊百順)과 चा오링(巧玲)의 관계도 일찍이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유지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그들은 “혼돈의 가장자리” 같이 삭막한 농촌 사회에서 진정한 “소통”을 갈구하며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작중인물들의 창발적인 행동은 새로운 남녀관계에서도 시도된다. 전·후반부 주인공의 아내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유부녀이지만 전통 사회의 윤리관에 구속 받지 않는다. 그들은 남편과 소통을 할 수 없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친다. 도망친 그들은 행복을 찾는다. 기차역에서 목격된 양바이순(楊百順)의 아내 우시양시양(吳香香)과 그의 정부 까오(高)는 형편은 어렵지만 행복한 모습이다.

“고구마를 막 화로에서 꺼내 매우 뜨거워보였다. 우시양시양(吳香香)은 두 손을 뒤척거렸다. 먹으면서 출구로 돌아 왔다. 까오(高) 앞에 와 그에게 주었다. 두 사람이 너 한 입 나 한 입 먹으며 고구마 하나를 같이 먹기 위해 서로 기대었다. 고구마는 여전히 우시양시양이 들고 까오에게 먹여주고

43) 같은 책, 320쪽.

있었다. 까오가 뭐라 한 마디 하니, 우시양시양이 웃으며 까오의 얼굴을 치고 또 웃다가 허리를 굽혀 입에 넣은 고구마를 내뿜었다. 고구마 먹는 장면을 보자 우머시(吳摩西: 양바이순의 딸 이름)의 머리가 “웅” 소리를 내며 터지는 것 같았다.”⁴⁴⁾

양바이순(楊百順)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보복하거나 징벌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그들이 자기를 속였지만 그들 자신은 속이지 않았다.”⁴⁵⁾라며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하고 떠나게 된다. 서술자는 이들의 행위를 오히려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후반부의 주인공 니우아이꾸어(牛愛國)의 아내 팡리나(龐麗娜)도 처음에는 장(小蔣)과 바람을 피우다가 다음에는 형부 상(老尚)과 도망치는데 여기서도 서술자는 니우아이꾸어(牛愛國)의 입을 빌어 인위적인 사랑의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다. 니우아이꾸어(牛愛國)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새로운 연인 장즈우홍(章楚紅)을 찾아가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서술자는 도덕이나 법률을 떠나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는 그들의 창발적인 행위가 현실에서는 아직 정상적인 관계로 수용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그들의 창발적인 행위는 “공통적인 경향이며 자발적으로” 시도되나, “자기 조직화”하여 하나의 물결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소통 부재로 인한 “고독”을 해결하는 또 다른 창발적 대응으로는 작중 인물의 갈망이나 몽상이나 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인공 양바이순(楊百順)은 특이하게도 루어장리(羅長禮)가 “장례식장에서 소리쳐 손님을 안내하는 소리(喊喪)”⁴⁶⁾를 듣기 좋아한다. 그가 집을 떠나게 된 것도 루어장리

44) 劉震云, 같은 책, 205쪽.

45) “他们骗了吳摩西, 但沒騙他們自己.” 같은 책, 205쪽.

46) 湖北省의 풍속으로 장례식장에 전문 사부를 초청해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이다. 조문객이 오면 목소리를 높여 “손님 오셨으니, 자식은 위치로-” 등을 외친다고 한다.

(罗长礼)의 한상(喊喪)⁴⁷⁾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타향에 가서는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이름을 루어장리(罗长礼)로 개명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한상(喊喪)”이 그에게는 현실의 고통을 잊고 자기의 생명력을 찾는 탈출구(창발적 대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동생 양바이리(杨百利)가 “이어서 말하기 噴空”를 할 때 희열을 느끼며, 장님 지아 씨(老賈)가 삼현(三弦)을 타고, 후씨(老胡)가 목공(木工)을 하고, 스씨(老史)가 연극을 보고 바둑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의 행위는 심지어 이탈리아 잔(詹)신부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⁴⁸⁾ 그들의 행위는 신이 없는 중국 사회에서⁴⁹⁾ 허무를 극복하고, 덧없는 인생 속에서 정신적 위로와 삶의 기쁨을 찾는 대응책이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소박한 그들의 갈망이나 몽상이나 추구가 현실에서 무시되고 부인되고 결국에는 좌절된다는 점이다.⁵⁰⁾

조상을 믿고 친족에 의지하던 중국 전통 사회의 가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중국의 현대 100년 동안 중국 농촌 하층민들은 새로운(창발적) 대응책으로 “소통”과 “갈망”을 찾고 있으나 아직은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구축하지 못하고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47) 한국의 한자 발음은 함상이나 중국어 발음은 한상이다.

48) 吕永林, 앞의 논문, 18-29쪽.

49) 이 소설은 《성경》을 경전으로 신을 믿는 서구 사회와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의 라틴아메리카 사회 그리고 《논어》를 경전으로 하는 중국 사회를 “고독”이라는 테마로 서로 비교하는 문명적 성찰로도 볼 수 있다. 주인공 양바이순을 애굽(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모세의 이름을 본 따 양 모세라고 개명하고,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출이엔진기 出延津记” 등을 사용해 기독교 문명과 비교하고, 《백 년 동안의 고독》(1967)의 “백년”과 “고독”이라는 문제를 서사의 중심 모티브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 상호텍스트성이 있다.

50) 王玲玲, 〈文学描述中的社会底层精神状态—以刘震云《一句顶一万句》〉, 《沧州师范专科学校学报》第27卷 第1期, 2011年, 9쪽.

III. 결 론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농촌 사회는 구질서의 가치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새로운 질서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혼돈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진단된다. 그 증표는 가족 관계와 혼인 관계의 파열, 사회의 신뢰 결핍, 소통 불능 등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들이다. 그 중에서 특히 “소통 불능”은 모든 무질서의 근원이라고 작가는 지목하고 있다. “소통 불능”의 원인은 신뢰의 붕괴이다. 이 소설의 제목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자기를 배반할 때 진심어린 “한 마디 말 一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⁵¹⁾ 린쑤오(林彪)나 마오쩌둥(毛澤東)처럼 중국 사회의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농촌의 하층민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사회는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겪는 “소통 불능”은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사회 개혁 혹은 혁명 또는 인류의 미래 등 거대 담론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비선형성”을 보인다. 신뢰가 무너진 부조리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식적일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그들의 행위나 사건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조리한(“비선형성”)사회에서 힘없는 하층민들의 인생행로는 비정상적으로 뒤틀어지고 어긋나게 된다. 이런 혼돈 상태에서 견딜 수 없자 그들은 “카오스적인 편력”을 시도하게 된다. 그 질서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해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대안 즉 창발적 대응을 시도하는 데 그것은 진정한 소통, 진정한 갈망과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기(知己)를 찾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이성을 찾고 진정으로 자기가 갈망하는 일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들의 새로운 추구(“창발적 대응”)는 고향에선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아직 “혼돈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51) 林彪와 毛澤東, 주3) 참조.

고향에선 새로운 추구를 이루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구질서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이곳”에서는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된다. 마지막에 니우아이꾸어(牛爱国)가 새로운 연인 장쯔우홍(章楚红)을 찾아 떠나는 것은 부정적인 일탈이라기보다는 창조적인 추구이다. 미약하지만 혁명적인 도약이다. 따라서 근현대 중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독”은 숙명이 아니며 미완성의 과제로 남는 것이다.

<References>

- Liu Zhenyun. Yiju Ding Yiwanju(A Top Ten Thousand). Hubei: Changjiang Chubanshe, 2009.
- Lǚ Yonglin. “Shui Shi Liu Zhenyun Xiaoshuo Shijie Hengjiu de Zhuren gong” (Who Is the Eternal Main Character of Liu Zhenyun's Fiction World?). Shanghai Wenhua, (Shanghai Culture), (2012): 19-29.
- Zhang Yiwu. “Shuxie Shengming He Yuyan Zhong de ‘Zhongguo Meng’” (Life in Writing and “China Dream” in Speech). Wenyi Zhengming (Literary Debate), (2009): 47-49.
- Li Qingxia. “Wugenzhe de Gudu Yu Yanshuo-LiuZhenyun Yiju Ding Yiwan Ju de Wenxue Yanyuxue Jiedu”(Loneliness of the Rootless People- Liu Zhenyun, “A Top Ten Thousand” Literary Language Interpretation). Chuangzuo Yu Pinglun(Creation and Criticism), (2012): 81-84.
- Cao Xia. “Taotao de Huayu Zhi Liu Yu Juewang de Shengcun Zhi Xiang” (Surging Word Ilk and a Desperate Survival Situation). Wenyi Zhengming(Literary Debate), (2009): 45-47.
- Meng Fanhua. “Shuohua’ Shi Shenghuo de Zhengzhi - Ping Liu Zhenyun

- de Changpian Xiaoshuo Yiju Ding Yiwan Ju”(‘Speaking’ is life Politics – Comment on Liu Zhen yun novel A Top Ten Thousand). Wenyi Zhengming(Literary Debate), (2009): 43-45.
- Zhou Xinmin. “Yiju Ding Yiwan Ju: Shuxie ‘Shuodezhao’ Zhongji Jiazhi”(A Top Ten Thousand: Writing the Ultimate Value of ‘Get along Well’). Wenxue Jiaoyu(Literature Education), (2010): 23-24.
- Wang Yang. “Women Hai Neng Zenme ‘Shuo’? –Liu Zhenyun de Yiju Ding Yiwan Ju Duzha”(How Can We ‘Say’? – Reading Liu Zhenyun’s A Top Ten Thousand). Xiaoshuo Pinglun(Fiction Reviews), (2010) 4: 84-87.
- Cheng Zhenpeng. “Yi Bu ‘Gudu’ He ‘Xunzhao’ de Lishi –Shixi Liu Zhenyun de Yiju Ding Yiwan ju”(A History of “Loneliness” and “Finding” – An Analysis of Liu Zhenyun’s A Top Ten Thousand). Wenxue Pinglun(Literary Review), (2011): 15-16.
- He Shaojun. “Huaizhe Gudugan de Ziwo Qingsu– Du Liu Zhenyun de Yiju Ding Yiwan ju”(Lonley Self-Talk – Reading Liu Zhenyun’s A Top Ten Thousand). Wenyi Zhengming(Literary Debate), (2009): 40-42.
- Xu Yibin. “Xueyuan Lishi Zhong de ‘Daolu’ Muti –Yiju Ding Yiwan Ju de Xingzou Yiyi”(The ‘Road’ Motif of a Blood Relative History– The Meaning of “Leaving” in A Top Ten Thousand). Chifeng Xueyuan Xuebao. (Chifeng College Review), (2011)3: 66-67.
- Li Jinhui An Zhishuo. “‘Ningba’ de Kouyu – Lun Liu Zhenyun Xiaoshuo de Yuyan Tese”(Spoken Language of “Distortion”– On Language Features of Liu Zhenyun Novel). Zhongguo Xiandai Wenxue Yanjiu(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2009): 89-90.
- Chen Xiaoming. “Xinshiji Wenxue: ‘Qu Lishihua’ de Hanyu Xiaoshuo Celue”(New Century Literature: The Chinese Novel Strategy of

- Eliminating History'). *Wenyi Zhengming(Literary Debate)*, (2010): 44-46.
- Li Yong. "Xinshiji Xiangcun Xushi Weilai Fazhan de Qishi Yu Keneng — Yi Lier、Chi Zijian He Hong Ke、Liu Zhenyun de Chuangzuo Wei Li"(New Century Rural Narrative Inspiration for Future Development and Possibility – Li Er, Chi Zijian and Hong Ke Liu Zhenyun's Creation as an Example). *Wenyi Pinglun(Literature and Art Criticism)*, (2011): 34-40.
- Chen Xinbang Deng. "Yici Xiang 'Minjian Shishi' de Jingong – Ping Liu Zhenyun Changpian Xinzuo Yiju Ding Yiwan Ju"(Attacking "Folk Epic" – Review of Liu Zhenyun New Novel A Top Ten Thousand). *Beida Kanping(Review of Beijing Univ.)*, (2009)7: 106-107.
- Du Wenbo, Yang Tao. "Lun Liu Zhenyun Yiju Ding Yiwan Ju Zhong Xiangtu Xushu de Lishihua Qingxiang"(On Eliminating History Tendency of Liu Zhenyun's A Top Ten Thousand Words). *Renwen sheke(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09): 165-167.
- Chen Xiaoming. "'Hansang', Xingcun Yu Qu Lishihua"('Shouted Funeral', Surviving and Eliminating History). *Nanfang Wentan (Southern Literature)*, (2009)5: 5-24.
- Ren Chuanyin. "Dui Minjian Shengming Zhuti de Guanzhao – Lun Liuzhenyun de Xiaoshuo Yiju Ding Yiwan Ju de Zhuti Yiyun"(Consideration of Identity of people in a Civil Society – On Liu Zhen Novel A Top Ten Thousand Theme Implications). *Pingdingshan XueyuanXuebao(Pingdingshan College Review)*, (2011)4: 76-80.
- Yun Maengsu and Cae Sengbeng. *An Introduction to Complex System*.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 2005.

Yosimasa Yoshinaga. 'Fukuzatsu - Kei'Towa Nani Ka. Ju Maenggab, trans. Seoul: Korea Economic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1997.

Stefan Greschik. Das Chaos und Ordnung. Park Sanghua trans. Seoul: Jaem & Moeum, 2010.

Edward Lorenz. The Essence of Chaos. Park Baesik, trans. Seoul: Para Books, 2006.

Ilya Prigogine. Order out of Chaos. Shin Gukjoe, trans. Seoul: Freedom Academy Pub. Co, 2011.

<Abstract >

Looking into “Yi ju ding wan ju: A Top Ten Thousand” by Liu Zhenyun, based on Complex System, it can be concluded that Chinese agricultural society is on the “edge of chaos”. The author states that the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is the root of chaos. Like the title of this novel, nobody can expect to receive a sincere “word” when the people who we trust betray us. If this happens lower class people not only to high class people, the society are in danger of dissolution. Such a society is “nonlinear.” In a “nonlinear society,” experiencing lack of trust, nothing reasonable happens. People at the bottom there live abnormal and distorted lives. Because they cannot endure it anymore, those people try “chaotic wanderings.” In the course of the dissolution, they attempt to take alternative actions, “emergent behaviors,” of true communications, desire and love. However, their “emergent behaviors” fail in their hometown.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new attempts to be accepted in their hometown, which in on the “edge of chaos,” people

leave there. In the last part of the novel, Niu aiguo leaves to find his new lover, Zhang chuhong. This is not a negative deviance but a creative chase and even a revolutionary leap. Therefore, “loneliness” in modern Chinese society is not destiny but a challenge.

Key Words :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 방사형 구조(Radioactive structure), 비선형성(Nonlinear), 카오스적 편력(Chaotic escape), 창발적 행위(Emergence behavior).